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MC 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시울코리아 가 함께 응원합니다.

제1341호 (2023년 9월 1일 금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尹 대통령 “추석 성수품 가격 5% 이상 낮출 것”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수산물 과감·신속 지원, 예비비 800억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하반기 정책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 끈을 놓을 수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내 관광 활성화 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뿐 아니라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혔다.

이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의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민생 현장 구석 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진영 기자



경찰, 9~10월 폭력·강절도 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폭력과 강·절도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흉기를 이용한 폭력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히 흉기

작년 강·절도 9.5% 늘어…폭력 범죄도 5.4% 증가

최근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한동안 감소 추세였던 폭력과 강·절도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23만2천 18건 이었던 폭력 범죄는 지난해 24만4천 697건으로 약 5.4% 늘었다. 같은 기간 강·절도 범죄도 16만6천 746건에서 18만2천 655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장물 범죄도 피해 물품의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다.

/ 박정훈 기자

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사족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과정을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민생 곤경·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난 제소 ▲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



다.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청년의 이 역할을 풀어주고,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될 정권이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 은폐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

점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을 겨냥해 “언론의 입을 가리고 땅운뉴스를 한다고요”라고 반문하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선 “절대 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게 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집소봉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또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느냐. 명백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현정 역사에서 대선에서 진정치세력이 집권 세력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퇴행적 집권 못 막은 내 책임”…대통령 사죄·오염수 반대·전면 개각 등 요구

“단식에도 검찰 수사 지장 없어”…사퇴론에 “압도적 지지·지지율 선방” 일축

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통령은 ‘1+1을 10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전쟁 영웅 흥법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며 “공산주의 사상하던 철 지난 매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

을 만든다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감춰지지 않는다.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 “이건 검찰 스토킹”이라며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암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라고 했으며,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영장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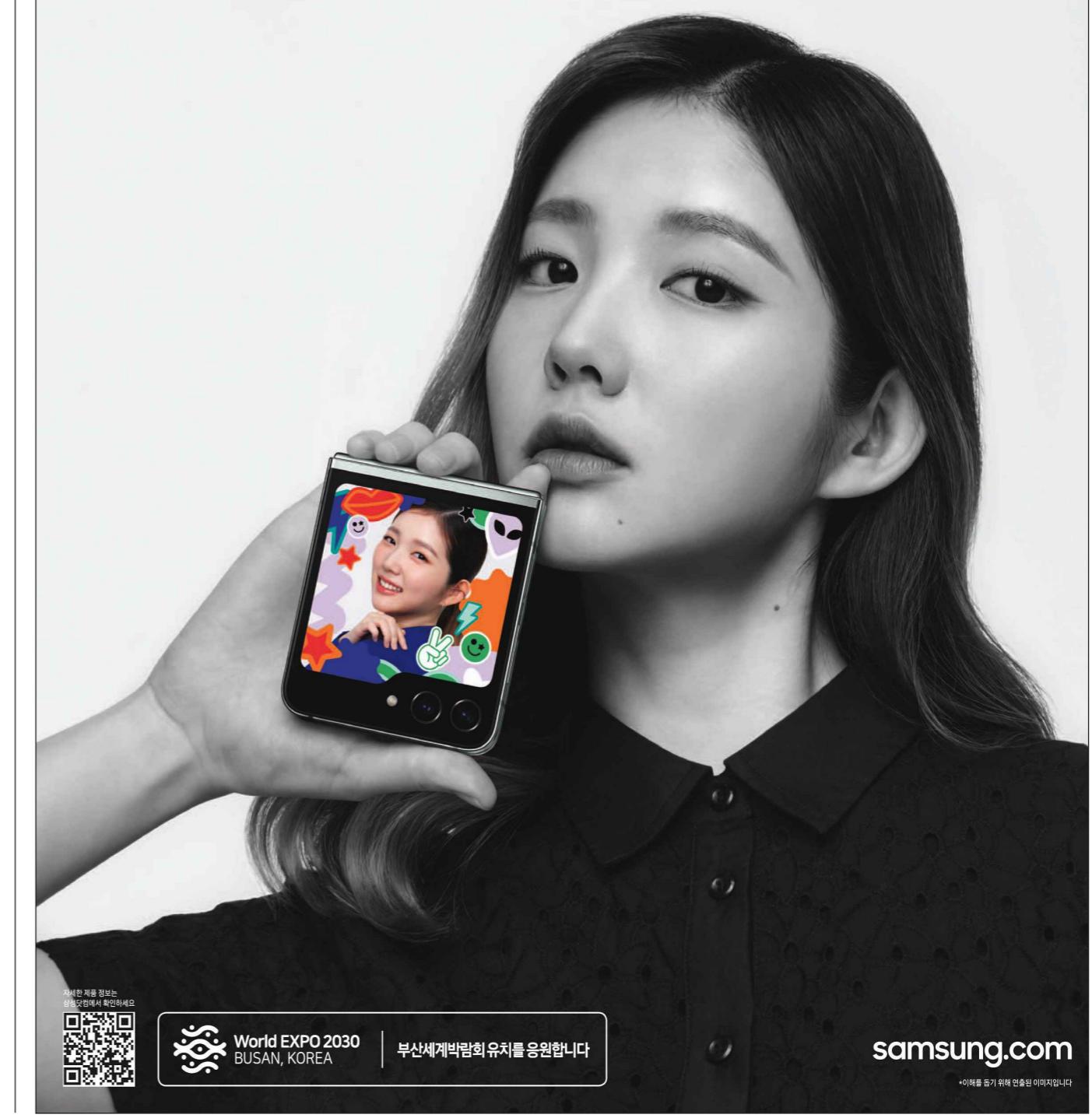
을 막고 또 대한민국의 전진을 담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넓게 판을 벌이고 포용, 혁신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있다고 해서 (수락)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SAMSUNG

Galaxy Z Flip5



samsung.com

*이책을 즐기 위해 번역된 이미지입니다.

서울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상암동 확정...주민 반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2035년 폐쇄...1천억원 규모 주민 편의시설 약속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2만1천㎡ 규모이며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한다.

현재 시는 마포를 비롯해 노원, 양천, 강남에 있는 소각장 4곳에서 하루 평균 2천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소각하지 못한 1천t의 폐기물은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왔는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추가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는 2020년 12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하루 1천t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31일 상암동 일대를 최적의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상암동은 배제기준 적용 후 압축된 5곳을 대상으로 한 정량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94.9점)를 받았다. 다른 4개 후보지는 ▲ 강서구 오곡동1(92.6점) ▲ 강서구 오곡동2(91.7점) ▲ 강동구 고덕동(87.5점) ▲ 서초구 염곡동(84.9점)이었다.

시는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후 인근 5km 내 기상·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와 칼퍼프 모델링(오염 물질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델)을 이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고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새 자원회수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기로 했다.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에 넣고 출입하는 청소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폐기물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자동화시스템과 오염방지설비를 도입하고 배출가스 관리는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오염 물질 배출 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

내 공공전광판 등에서 실시간 공개한다. 지상부는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문화시설과 전망대,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든다.

상암동 주민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편의시설은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사우나, 골프연습장, 놀이공간 등으로 건립한다. 또 매년 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사용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시설이 건립되는 마포구 주민을 위해 시와 자치구가 해야 할 일을

의결하고 시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은 ▲ 주민건강 영향조사 방안 마련 ▲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참여 방안 모색 ▲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랜드마크로 조성 ▲ 쓰레기 감량을 통한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 조기 철거 ▲ 최신 시설 도입·건설 등이다.

시는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하는 등 주민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날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한 후 예비당성 조사와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후속 절차를 밟는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참여로 추진한다.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또는 마포구 자원순환과에서 10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속해서 주민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건설해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며 “시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상암동 인근 주민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의 엄격한 관리 방침과 여러 유인책에도 주민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마포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는 시의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입지 선정에 대해 이해할 만한 그 어떤 명분도 논리도 설명하지 못했고, 기준에 소각장이 있는 곳에 더 큰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으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송원기 기자



계속되는 주민

서초구 사망 교사 유족, 순직 신청

“감당할 수준 벗어난 업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 측이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훌륭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이 계속되자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연필 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민원에 ‘소름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드러난다”라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경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 측은 순직의 경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에 이르게 됐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날 유족 측이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최종 판단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 곽성호 기자

검찰, ‘라임 환매 의혹’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라임 사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구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2019년 라임 펀드 판매·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배경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예정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애당 국회의원과 기업 등 특정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달 24일에는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 김준현 기자

오늘밤 가장 크고 둑근 ‘슈퍼 블루문’ 뜯다…놓치면 14년 기다려야

오늘 밤 한 달 중 두 번째 뜬 보름달이면서 가장 큰 달인 ‘슈퍼 블루문’이 뜬다.

오늘을 놓치면 1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날씨가 개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31일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올해 가장 큰 둑근달, 이른바 ‘슈퍼문’을 볼 수 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에 위치할 때 뜨는 보름달을 뜻한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원지점 보름달(미니문)보다 14% 크고 밝기는 30% 밝게 관측된다. 또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뜬 보름달을 뜻한다. 달은 약 29.53일을 주기로 위상이 변하기 때문에 2년 8개월마다 보름달이 한 달에 한 번 더 뜨게 된다.

이 경우 한 계절에 보름달이 4번 뜨게 되는데, 이때 3번째 뜬 보름달이 블루문이 된다.



슈퍼문과 블루문이 동시에 뜨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다. 가장 최근은 2018년 1월 31일이었고, 다음은 14년 후인 2037년 1월 31일이다.

천문연에 따르면 오전 10시 36분에 지구에서 달이 가장 둑글고 크게 보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달이 뜨는 시간인 오후 7시 29분부터 관측이 가능하다. 슈퍼문 관측의 변수는 날씨가 될 전망이다.

/ 최중성 기자

서울 관광경찰, ‘유커’ 입국 대비 특별 치안활동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인의 한 국 단체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수요에 대비한 특별치안 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이 오전에 경복궁과 종로 일대, 오후에는 명동·동대문, 저녁에 홍대·이태원 등을 많이 찾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특별활동 기간은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연휴(9월20일~10월 6일)를 포함한 9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

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하는 맞춤형 치안 활동을 할 계획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오전에 경복궁과 종로 일대, 오후에는 명동·동대문, 저녁에 홍대·이태원 등을 많이 찾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기족 단위로 단체 관광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경찰은 미아·신촌·분당신고에 대비해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현온서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南점령’ 北훈련시나리오…계룡대 타격 후 공항·군항 동시공격

핵선제 타격 이어 위협 계속…美증원전력 타격계획도 마련

북한이 ‘남반부 전 영토 점령’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전군지휘훈련’에 돌입하며 더욱 노골적인 대남 위협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남한에 핵 선제타격을 가하는 내용이 반영된 법령 채택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남한 점령 계획까지 포함한 지휘소훈련(CPX)에 돌입한 것이다.

전군지휘훈련은 지난 29일 시작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훈련 상황과 시나리오 등을 보고 받았다고 31일 북한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이 이런 형태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파’(UFS·을지프리덤실드) 대응 성격이 강한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은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데 총적목표”를 뒀다면서 유사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작전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남한 점령 작전계획을 보면 작전 초기에 우리 군 전쟁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를 타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어 핵심 군사지휘 거점과 군항, 공군비행장을 비롯해 사회·정치·경제적 훈련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타격하겠다고 주장했다.

군사지휘 거점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 약진군 지휘부,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해군 1·2·3 함대, 부산 작전기지, 전국의 공군 비행장을 동시에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남한의 핵심시설과 배치전력이 표시된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을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쭉 짚으며 관련 지시를 하는 사진을 내보냈다.



북, ‘남한점령’ 전군지휘훈련 실시…김정은, 지휘소 방문

작전 초기에 우리 군 전쟁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를 타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어 핵심 군사지휘 거점과 군항, 공군비행장을 비롯해 사회·정치·경제적 훈련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타격하겠다고 주장했다.

군사지휘 거점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 약진군 지휘부,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해군 1·2·3 함대, 부산 작전기지, 전국의 공군 비행장을 동시에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날 남한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판 에이태크스(KN-24) 2발을 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에도 600mm 방사포 사

격 훈련을 하면서 그 목표가 공군 비행장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600mm 방사포가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활당해 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며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한미의 UFS 훈련에 맞서 북한군이 실기 동이 아닌 주요 군지휘관과 참모들이 소집된 전쟁 절차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같이 공개한 것은 개전 초기에 전술핵공격으로 주요시설 공격, EMP로 통신망 마비를 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한 사회의 훈련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타격 위협도 주목할 대목이다.

여기에는 대량 전력 송신망, 금융망, 대형 다목적댐,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민항기 공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사이버 및 전자전 공격, 가짜 뉴스 유포 등도 예상된다.

또 후방에서 교란작전도 공언했다.

김정은은 “적후(후방)에서의 배후교란 작전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배합적용하여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데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AN-2 수송기와 잠수정 등을 이용해 특수전 병력을 침투시켜 후방지역을 교란하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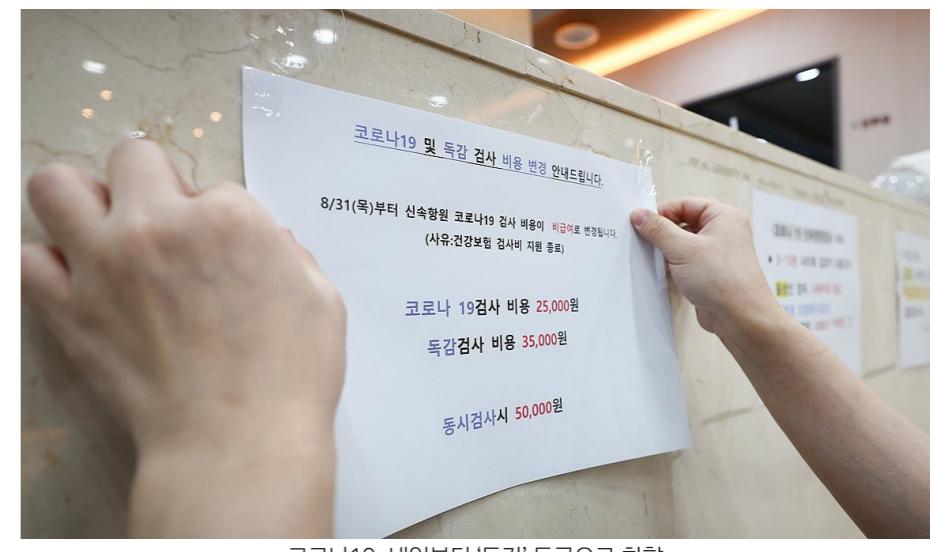
유사시 특수전 병력을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침투시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동시에 치르는 배합전은 북한군의 핵심 교리에 속한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군에 대한 타격 계획도 북한은 마련해뒀다고 공개했다. 김정은은 “해외무력개입 파탄계획 등 종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북한은 대규모 증원전력을 신고 올 미국의 항모를 타격할 수 있어 ‘항공모함 킬리’로 불리는 대항탄도미사일(ASBM)을 이미 개발했다.

김정은은 훈련지휘소에서 남한의 반격으로 인한 타격수단 보호와 작전지휘체계 및 학력지휘통신 방식 등 C4I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 송진영 기자



코로나19, 내일부터 ‘독감’ 등급으로 하향

코로나19 오늘부터 독감과 같은 4급 검사 유료 전환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일상회복에 더욱 속도가 붙으면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가까워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 결핵, 흉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터 4급으로 낮아진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 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

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된다. 감시 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을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중환자실 격리 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 정유민 기자

**바다가 넘는
경기예매!**

지금 우리 바다와 어촌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다기금 정기예금으로
바다사랑을 실천해주세요!

Sea & Love

**예금 가입으로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예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조성을 위해 수협중앙회 부담으로 연 평잔 순증액의 0.0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기부처에 출연하는 거치식 예금입니다.

• 이 예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인당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Sh 수협

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다음 달 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천232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 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1.7%에서 올해 23.9%로 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부는 건설 현장

500여곳을 찾아 기성금(공사기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친가지로 임금체불이 많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한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률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성운 기자

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에 ‘신중 검토’ 의견

“논란 있는 제도…범죄 예방 효과도 단정 못 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3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이달 25일 이같이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한 논의는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나라의 상당수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적용 범죄를 주가 연구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규정하는 나라는 4개국이고 11개국이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며, 종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9개국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미국의 종신형 연구에 관한 상당수의 문헌은 해당 형벌이 지니는 잔혹성과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고 지적했다.

또 “절대적 종신형은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의미 외에 형사정책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무기형의 최소 복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행성이 양호하지 않고 뉘우침이 뚜렷하지 않은 피고인은 가석방을 불허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최소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9일 대표 발의했다.

/ 김유정 기자

與, 김남국 제명 부결에 “윤리 파산선언…민주당 자살꼴 될 것”

“이재명에 출서면 끝까지 지켜준다’는 조폭 같은 신호”

국민의힘은 31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을 겨냥해 “자살꼴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대마왕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이 결국 부결된 것은, 이재명에게 출서면 끝까지 지켜준다는 조폭 같은 사인(신호)”이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 이 대표가 최측근 김남국 의원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좋은 국민 여론에도 다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

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윤리위원 전원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제명을 권고했는데 결국 부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민주당 지도부와 모종의 ‘결’(거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번 건은 내로남불로 민주당의 자살꼴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진 “처리 전과 처리 후 오염수, 구별해 부르는 게 과학적”

박진 외교부 장관은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과 관련해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등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하

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다행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쳐 방류한다는 점에서 ‘처리수’라고 불리워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라는 명칭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국내 여권에서도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수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수협 회장은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지적에 “(용어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진 장관은 올해 10월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제명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어떤 징계도 조치도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썼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윤리특위 제소를 당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김남국 의원과 나는 코인을 했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전혀 다르다. 야당에서 추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권고했지만, 나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무 조치를 안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그쪽 당(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인가, 거기는 나보다 훨씬 심한 데 고발도 안 하고 나만 제소한 것은 정치적 제스처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 송유영 기자

들의 잇단 주장에는 “정부에서는 이것이 해양투기라고 결정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과 국제기준,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오염수가 투명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종회에서 밝힐 것이라고 하고 “정부는 런던의정서상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런던협약·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 임준성 기자



건배하는 홍준표와 이준석

대구치맥축제 찾은 이준석

“洪에 왜 국회의원은 안보이나 물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왜 주호영 의원 빼고는 국회의원이 안 보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 시정과 의정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욱 적극적인 행사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사 그들에게 마이크를 주여주거나 단상에 불러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훌대하는 거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홍 시장은 2011년 당 대표 때부터 주류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온면서도 대선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다시 됐다면 민심 하나만 보고 가면 정체인에게 믿을 구석이 있단 것을

삶의 궤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대구 동구를 출마 설에 대해 “서울 노원구에 집중하고 싶다”며 “나와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을 갈라놓으려는 분들이 말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최근 보수 세력이 겪는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총선을 치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총선 성격이 그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저도 총선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는 개막식을 찾은 이유에 대해 “대구 치맥페스티벌에는 오겠다고 공언했었다. 홍 시장과 차 한잔하자고 연락했더니 개막식에 오라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여기서) 환호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경우 오늘은 이념보다는 친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노승만 기자



SANTA FE

HYUNDAI

순천 간 김기현 “일 잘하는 지자체, 못하는 지자체 차별 있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1일 “여당과 정부는 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 지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도록 청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둘러본 뒤 현장 최고 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개장 이후 반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벌써 600만명 넘는 관광객이 박람회를 찾았다고 한다. 특히 초대박 행운이 아닐 수 없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중소도 한 곳의 인구와 맞먹는 2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하루에 몰려도 교통체증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며 “노안군 순천시장을 비롯해 시청, 도청, 조직위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 등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건복지부 소관), 가정 백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여성가족부 소관),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은 소년원·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 소관) 등으로 지원이 분산돼있다.

아울러 특위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사

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립지원 종사자 단계적 확장 ▲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청년에게 집중사후관리 및 전문 심리·정서 지원 강화 ▲ 자립지원 필요청년 주간 지정 등도 제안됐다. 김기현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사회적 부모가 필요한 자립지원 필요청년”이라며 “통합의 관점에서 자립지원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지웅 기자



인사말하는 김기현 대표

김 대표는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잘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요즘 호남지역 인사들 중 상당수가 ‘1당(민주당) 장기독점’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 인사들이 자신에게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호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부터 호남에 매월 한두차례 이상씩 내려온다”고 소개하면서 “이젠 고향 같은 편안함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부터 호남에 매월 한두차례 이상씩 내려온다”고 소개하면서 “이젠 고향 같은 편안함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 이민혁 기자

압수수색 당한 김용 변호인 “위증 요구안해…변론권 침해”

김용 공판서 주장…“증언 내용 확인하려 증인과 연락했을 뿐”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인이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도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재판 전 증언 내용을 확인하려고 증인과 연락한 것을 갖고 검찰은 위증을 교사했다며 압수수색했다”며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변호인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재판에서 증인이 실물화상기에 올렸던 휴대전화 일정표를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으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관이 집을 모두 뒤지고 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건 관련 파일을 가져갔다”며 “변론 준비 자료 파일과 준비 서면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위증 수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은 재판에 대한 조력일 뿐 특정 직업(변호사)을 가졌다고 법 위반 행위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증언과 관련해 변호인이 직접 수사받는 상황까지 생긴 점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와 관련해 증인을 다시 불러 신빙성을 재차 탄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하자는 않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2021년 5월3일 낮) 김 부원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증언하도록 이 변호사가 교사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일주일 뒤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수수 시점에 김씨를 만났다는 이씨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옛 휴대전화 달력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막바지로 치달은 이번 재판은 이르면 내달 말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일자가 어느 정도 특정돼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1일 서증을 확인하고 변론을 들은 뒤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주기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10월5일 종결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 곽연우 기자



‘동시 하한가’ 첫 공판…주식카페 강기혁씨 혐의 부인

지난 6월 ‘동시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단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페 회원 손모(36)씨와 박모(49)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회원 서모(50)씨는 기록을 검토하고 나중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씨는 수사 초기부터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 인위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주가를 띠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서에 자세히 써서 다음달 26일 공판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 최현성 기자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국방부 검찰단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1일 열린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항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께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영장을 청구하고, 해병대 수사단 자료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압수한 상태여서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 왜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초동조사를 재검토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고 중령급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압축해 지난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 자료를 넘겼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하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 심형철 기자

제주서 음주운전 신고하면 5만원·3만원 포상금 준다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31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원,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0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개월간 랑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바 있다.

시행 초기 포상금이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월 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 백권승 기자

하지만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 부담이 커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상금을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낮췄고 신고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5회로 제한했다.

앞서 4월 제주도의회는 ‘제주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용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공항, 새로운 시작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초융합 글로벌 공항그룹으로
43년간 쌓아온 공항운영 노하우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KAC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

트럼프, 바이든 상대로 ‘정치보복’ 시사…“다른 선택 없다”

“대선 이기면 감옥행” 으름장…“그들도 우리에게 그리고 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 보복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과 미디어 ITE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보수 성향 방송인 글렌 베이 운영하는 인터넷 TV ‘블레이즈TV’와 전화 인터뷰에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글렌 베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맞수였던 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로 사법처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나 당선 이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베이는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을 처벌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다시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을 가둘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며 보복을 시사했다.



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24일 조지아주 구치소에서 머그샷을 찍는 등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늘 대통령 직무를 존중해왔다. 그리고 바이든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타격한 적도 없다”면서 “그런데 그가 나를 기소하려 한다고 듣게 됐고 실제로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많은 것을 생각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는 그곳에 있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일 것”이라며 자신이 기소당한 배경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맨해튼 검찰에서 성관계 입막음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가 맨해튼 검찰에 그의 측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이들은 모두 악마 같은 사람들”이라고 물어세웠다.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정작 자신의 감옥행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 4차례 기소되면서 총 91개의 혐의를 적용받았으며,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최대 형량으로 징역 717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포브스가 보도한 바 있다.

/ 송원기 기자

프리고진 암살위험 알았다…“전용기에 갖은 방어장비·생존전술”

“외부추적 차단…응답 끄기·갈아타기·비행 중 목적지 변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도전하는 무장 반란을 시도한 지 두 달 만에 의문의 비행기 추락으로 숨진 러시아 바그너 용병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생전에 그런 방식의 암살 위험을 느끼고 치밀한 대비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항공기 추적 서비스인 플라이트레이더24가 제공한 지난 2020년 이후 프리고진의 비행 기록을 분석해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프리고진이 제트기 추락 사고로 숨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항공기가 자신의 암살을 위한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전용기에 각종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비행경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소개했다.

프리고진이 자주 이용한 전용기는 브라질산 ‘эмбрей르 레거시 600’ 제트기였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섬나라 세이셸에 본사를 둔 프리고진 연계 회사가 지난 2018년 아일랜드해 브리튼 제도에 속한 영국 왕실령 맨섬에 등록된 회사로부터 이 제트기를 인수한 뒤 항공기 등록지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로홉스코예 공동묘지’에 조성된 프리고진 묘

와 관할지는 여러 차례 변경됐다. 제트기에는 외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 전자 차단 스마트창 등의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주로 모스크바 북동쪽의 초칼롭스키 공군기지나 인근의 민간 공항에서 출발한 그의 제트기는 비행경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주 ‘트랜스포더’(항공교통 관제용 자동 응답 장치)를 껐다.

가짜 여권을 소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승무원들은 이를 직전 승객 명단을 수정하거나, 비행 중에 관제 센터와 교신해 갑

작스레 목적지를 변경하기도 했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용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로 갈 때는 2~3대의 제트기를 같아타는 치밀함을 보였다.

바그너 그룹이 국방부를 비롯한 러시아군 지휘부에 반대해 일으킨 지난 6월의 무장반란이 실패로 끝난 뒤 프리고진은 주변 보안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러시아군과 연계된 모스크바 공군기지나 다른 군용비행장 이용을 중단했고, 비상사태부가 제공하는 정부 제트기도 이용하지 않았다.

중국, 美 상무장관 방중 긍정 평가

“우리 국력 성장했기 때문”



30일 상하이 디즈니랜드 방문한 라몬도 장관

중국이 지난 라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3박4일 방중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1일 ‘러몬도,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중국 방문 마무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라몬도 장관이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양국 기업의 실용적인 협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라몬도 장관이 리창 총리,

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유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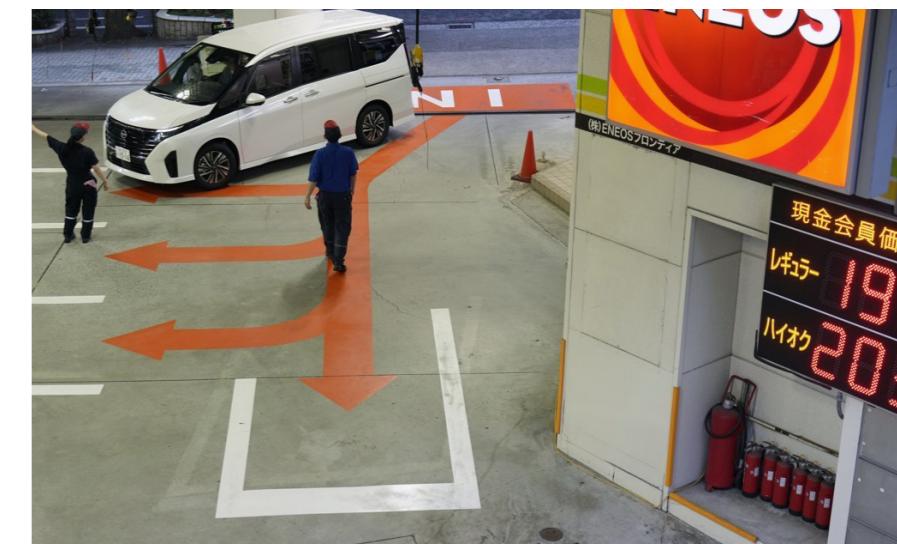
휘센궈 전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회 회장은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협력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원원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 이익을 냈고 많은 기업이 올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의 진전이 중국의 국력 성장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베이징 소재 정보통신소비연맹 양리강 이사장은 “러몬도의 부드러운 어조는 중국이 과거처럼 수동적이지 않으며 완전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하오민 중국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라몬도 장관 방중 기간 미국의 제재를 받는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은 중국과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의 탄압이 실패했다는 증거이고, 미국이 중국의 기술 부상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양호진 기자



일본서 휘발유 가격 최고치 경신

기시다, 지지율 하락·고물가에 “휘발유·전기요금 지원 연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해 올가을에 종료될 예정인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기시다 총리에게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와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내달 말에 끝나는 휘발유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휘발유 가격은 15주 연속 올라 지난 28일에는 전국 평균 소매가가 L당 185.6엔(약 1천 68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15년 만에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7일부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월에는 휘발유 가격을 L당 175엔(약 1천 584원) 정도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우선 조치를 연말까지 강구하고 에너지 가격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생각하겠다”고

/ 김민재 기자

SAMSUNG

구형 TV 종고로 팔려야 새 TV로 바꾸자는 경제관념 확실한 우리 아내

상 밭을 만해



TV를 바꾸려면 바로, 지금.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 「삼성 TV로 바꿔보상」

최대 100만 포인트 보상 혜택부터 Neo QLED 189cm 경품 당첨의 기회까지!
지금 전국 삼성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만나보세요.

2023.06.01~07.31

Neo QLED 8K | Neo QLED | QLED | OLED



| 17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2006~2022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mdia 기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예비비 800억 긴급투입…할인행사 확대

“오염수 방류 이후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안전’”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긴급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고 우리 수산업계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설·추석 등 특별한 기간에만 시행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전통시장 등에서는 이날 환급행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21개소는 다음 달 15일부터 동참할 계획이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



우리 해역 방사능 안전 관리 현황 설명

매하면 한 사람당 최대 2만원,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40%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36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38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우선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전체 수산물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된다. 예비비가 최종 의결되면 1인당 할인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

로, 할인율은 최대 50%에서 60%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도 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확대 발행한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실시한 제주해역 3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가까운 바다 5개 해역(서남·남서·남중·남동·제주)의 25개 지점, 면마다 10개 지점에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각 지점의 긴급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신승진 기자



추석 물가 부담 줄인다

정부, 성수품 공급 1.6배로 확대

명태·고등어 등 비축 수산물

최대 1만1천500t 방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

7.1%, 8.3% 늘린다.

생산 감소로 가격이 오른 닭고기는 9~12월 3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해양수산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4~27일 정부 비축수산물을 최대 1만1천500t 방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14개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으로 추석 성수기인 다음 달 7~27일 총 14만8천 874t(톤)을 공급한다.

이는 추석 성수기 공급량 중 최고 수준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연다.

추석 성수품과 평년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대중성 어종, 제사용품 등이 할인 대상이다.

행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마트와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낭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 권도훈 기자

농식품부는 평소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4개 품목을 일평균 5천135t씩 공급해왔으나 성수기 약 3주간은 공급량을 일평균 8천278t으로 늘린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와 배는 공급량을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각각

산업부 “조선업 현장애로 접수합니다”

8개월간 20건 해소



조선업계 CEO 간담회서 발언하는 이창양 장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업 현장 애로 데스크’를 통해 총 28건의 애로를 접수해 20건을 해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사의 경우 폭 3.4m 이상인 선박 광폭화물의 주간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신호수 배치, 안전 속도 준수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가 발급되도록 지원해 애로를 해결했다.

중소기업인 B사는 ‘기업 자체적인 안전 교육이 어려워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건의를 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안전한

조선업 현장 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및 KOMERI 누리집(www.komeri.re.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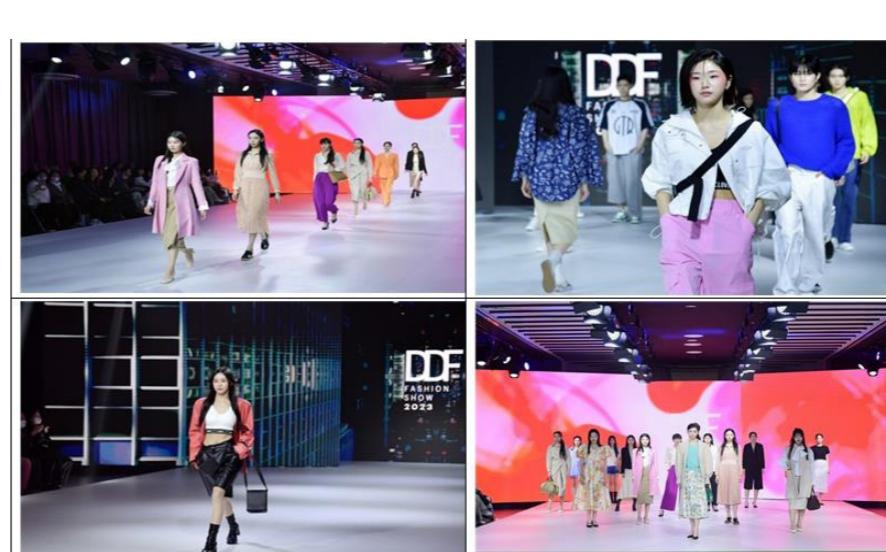
조선업 현장 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및 KOMERI 누리집(www.komeri.re.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인력수급 애로,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약 수용하기 곤란한 건의는 해당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영준 기자

‘메이드 인 동대문’ 9월 5~6일 DDF·하이서울패션쇼



서울시는 동대문 도소매 쇼핑몰이 자체 제작한 의류를 선보이는 DDF(DDP District Fashion) 패션쇼와 신진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하이서울 패션쇼가 9월 5~6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5층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DDF 패션쇼(9월 6일)는 5개 도소매 쇼

핑몰에서 자체 제작한 2024 S/S(봄/여름) 여성복을 선보인다. 그간 패션쇼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거나 비용 부담에 막설었던 동대문 디자이너를 위해 무대와 진행 비용을 시가 모두 지원한다.

하이서울패션쇼(9월 5~6일)는 하이서울쇼룸에 입점한 7개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여한다. 하이서울쇼룸은 신진 디자이너와 패션 소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판매 전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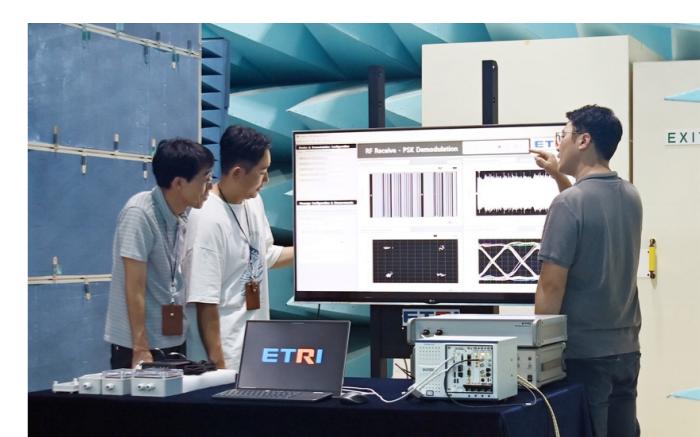
권소현 서울시 부티패션산업과장은 “하이서울패션쇼와 DDF 패션쇼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와 동대문 의류의 제품력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차형석 기자



금융 사각지대에 관심을 더하고
편리한 금융이 되고자 혁신을 더하고
고객 일상이 행복하도록 안심을 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화손해보험의 +는 계속됩니다



호 전송수준인 4kbps급 데이터를 전송했다.

안정적인 통신이 불가능했던 광산에서 음성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송한 셈이다.

이 기술은 광산 붕괴는 물론 지하 공동구와 같은 지하 매설물에 발생한 화재·재난 등 통신 불가 비상사태에서 신고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평균 40m 통신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하천·강 등 민물 지역에서도 수중 40m 통신에 성공한 바 있다.

/ 한유성 기자

지하 40m 암반 광산서 무선통신 송수신 가능성 열었다

광산 등 지하매설물 붕괴 사고로 구조작업을 할 때 매몰된 사람의 생존 여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광산 평균 40m 거리에서 음성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자기장 지중 통신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산은 복잡한 지하 환경 등에 따른 신호 감쇠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ETRI는 매질에 대한 자기장의 고유한 경계조건 특성을 이용해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자기장 지중 통신 시스템은 기존 해외 연구진의 수십 미터(m)급 송신 안테나를 1m로 소형화했고, 센티미터(cm)급 자기유도 기반 소형 수신 센서로 구성했다. 이 송·수신 안테나는 마치 통신 중계기(AP)와 같은 역할을 해 지상과 땅속을 연결하는 기지국 역할을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앞으로 지상 송신기와 땅속 수신기가 설치된다면 구조를 받는 사람은 개인소유 단말기(핸드폰)로 송수신 안테나를 연결해 통신할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은 이번 통신 시험을 석회암 암반으로 구성된 광산 내 40m 거리에서 수행하면서 20kHz 대역 반송파를 이용해 음성신

서울시 “추석 앞둔 9월 택배 분실·훼손 유의하세요”



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택배 관련 상담은 총 5천 56건이며 9월에는 상담 건수가 전월보다 23%가량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불이행’이 52%로 가장 많았다.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반품 회수 중 분실된 운송물 손해배상 거부, 운송물 파손 손해배상 거부, 신선식품 배송 지연과 변질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운송물 가격은 분실·훼손·배송 지연 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택배 관련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송원기 기자

의정부경전철 요금 10월에 또 오른다…최고수준 ‘1천700원으로’

개통이후 3차례 올려…내년 하반기 또 인상 가능성 있어

경기 의정부경전철의 잣은 요금 인상이 논란이다. 10월 7일 인상 예정인데 2012년 개통 이후 벌써 세 번째다. 한 시의원은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요금 중 별도 운임 300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수도권 환승할인 정책에 따른 기본 운임과 수익 보장 등을 위한 별도 운임으로 구분된다.

기본 운임은 경기도가, 별도 운임은 의정부시가 각각 결정한다.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2012년 7월 개통 당시 1천300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별도 운임을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12월 환승할인이 적용되면서 기본 운임 1천50원과 별도 운임

250원으로 구분했고, 여기에 별도 운임 50원을 인상해 요금을 1천350원으로 올렸다.

이어 2015년 6월 서울시가 철도 요금을 올리자 의정부경전철도 기본 운임 1천 250원과 별도 운임 100원으로 조정했으나 요금 총액은 변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에는 경전철 운임 수입 현실화 등을 이유로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별도 운임을 300원으로 올리면서 요금이 1천550원으로 올랐다.

또 올해 환승할인 관련 기관이 철도 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하기로 해 기본 운임만 150원 올라 의정부경전철 요금도 10월 7일부터 1천7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 폭은 다음 달 중순 경기도 소비자물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결국 승객이 내는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2012년 1천300원에서 2014년 1천350원, 2019년 1천550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조만간 1천7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강현주 기자

인천시가 운영 중인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

인천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해 2자녀 가구도 공영주차장·시립체육시설 반값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군·구별로 다른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2자녀 이상’, ‘감면율 50%’로 통일된다.

지난해 4월 중구를 시작으로 현재 7개 군·구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동구와 미추홀구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군은 3자녀 이상 가구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아이도카드를 소지하거나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9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 중인 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해 2자녀 이상 가구에도 10% 할인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우선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새로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시가 현재 2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시립문화시설 수강료 면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연회비(1만원) 면제, 시립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있다.

/ 황유선 기자

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연내 국회 통과 목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전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이 특별자치도란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둘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란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이 담겼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조항과 K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뤘고,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첨단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내 통과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준현 기자

대구치맥페스티벌 30일 개막…MZ세대 겨냥 야외클럽 테마

인공제설기 동원 겨울 정취 공간도…9월 3일까지 두류공원 일원서 개최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치맥의 성지에서 다시 새롭게 도약한다’는 슬로건으로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강화했다.

MZ세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치맥 클럽, 눈 내리는 치맥 펍, 8090 감성포차, 애코프렌들리 스탠딩바, 별빛 치맥 정원 등이 대표적이다.

메인 행사장인 두류공원 시민광장에 조성되는 프리미엄 치맥 클럽은 젊은 세대를 위한 야외 클럽 테마로 꾸며진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이 플로우와 협업해 치맥페스티벌을 상징하는 30m 길이 대형 아트월을 제작했다. 축제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그라피티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눈 내리는 치맥 펍은 인공 제설기를 동원해 방문객들이 때 이른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민다.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지난해 배 규모인 1천88석으로 늘렸다.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맥주와 기념품을 제공한다.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대구시는 핀란드 대사관과 연계해 이색 글로벌 경기인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는 대만, 싱가포르, 일본 관광객 8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가 골목상권 회복과 활력 넘치는 도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진우성 기자

철도노조 “무궁화호 대체열차 ‘ITX-마음’ 요금 인상 반대”

“열차 바꾸며 슬그머니 운임 올리는 행위 중단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0일 “무궁화호 대체 열차인 ITX-마음 열차의 요금은 무궁화호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 열차는 무궁화호 후속 열차지만 운임은 ITX-새마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철도노조는 “신형 고속열차가 들어왔다고 열차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며 “열차를 바꾸며 슬그머니 운임을 올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달 1일부터 운행하는 ITX-마음은 모두 9편성으로, 경부선·호남선·전라선 각 4회, 태백선 2회 등 하루 총 14회 운행한다. 운임은 서울~부산 4만2천600원, 용산



원희룡 장관, 친환경 신형열차 ‘ITX-마음’ 개통식 참석

~목포 3만9천600원, 용산~여수엑스포 4만1천100원, 청량리~동해 2만7천500원 등 ITX-새마을과 같다.

열차 내 편의시설은 일반열차지만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제공된다. 차내 무선인터넷, 좌석당 전원 콘센

트·USB 포트, 독서등 등 개인 설비를 갖췄고, 일반열차 가운데 최초로 객실 사이에 임석 승객을 위한 간이석을 설치했다.

코레일은 2028년까지 모두 107대의 ITX-마음을 전국 일반철도 노선에 순차적으로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일반열차 운임은 철도공사 출범 이후 15년 넘게 거의 동결됐고 2011년 새마을·무궁화호 기본요금까지 내리면서 교통요금 부담을 낮추려 철도공사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철도 공공성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열차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성호 기자



기자회견하는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

“눈썹 문신 불법 아냐”

반영구 화장 미용사 항소심서도 무죄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비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

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끊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하면 대법원에 상고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판단 받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1992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냈다.

/ 권정석 기자

제주해녀축제서 日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녀안전 기원’

내달 22~24일 해녀박물관 일원, 제주해녀 문화 알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 문화를 알리는 축제가 다음 달 22일

~24일 열린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제주해녀박물관과 해안변 일원에서 치러지는 제16회 제주해녀 축제 둘째날인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녀의 안전을 기원하는 굿이 봉행된다.

이번 축제는 첫날 전야제를 시작해 둘째 날인 23일 해녀굿과 거리 퍼레이드, 제6회 해녀의 날 기념식이 이어진다.

전야제에서는 제주를 떠나 물질을 하는 출항 해녀와 전국의 해녀를 초청해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방문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구좌읍에서는 제주를 떠나 물질을 하는 출항 해녀와 전국의 해녀를 초청해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방문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 등이 있다.

해녀굿과 구좌합창단 공연, 해녀노래자랑, 해녀 물질대회 해녀 명랑운동회, 수산물 자선경매, 숨비소리 플로깅, 해녀 물질체험, 소라비름잡이, 맨손 고등어잡기 등 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또 여성영상 영화제, 해녀책방, 해녀 화보 전시, 해녀 스튜디오 등도 방문객을 맞는다.

정체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전국 해녀의 잠재력을 한데 모으기 위한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의 원년”이라며 “해녀축제를 제주해녀만의 잔치를 넘어 한반도 해녀의 잔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해원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울산 고래문화특구 올해 방문객 100만명 돌파 눈앞

작년보다 1개월 반 단축…“역대 최다 연간 방문객 예상”



공단은 9월 초를 전후해 올해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래문화특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방문객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0월 22일 100만명을 돌파해 최종 120만3천여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반 정도 빨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올해 방문객 수를 135만명 전후로 예상하며, 이는 2008년 장생포가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이후 한해 기준 최다다. 공단은 100만번째 방문객에 대해서는 호텔 무료 숙박권과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춘실 공단 이사장은 “아간 관광 활성화 등도 준비하고 있어 고래문화특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효진 기자

‘슈퍼 블루문’ 맞으러 경주로 가볼까

달빛맞이행사 열린다

경북 경주시는 3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슈퍼 블루문 달빛맞이 행사인 ‘큰 달 보러 경주 가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는 지점일 때 평소보다 더 커 보이는 보름달을 가리킨다.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이다. 슈퍼 블루문은 슈퍼문과 블루문의 합성어다. 슈퍼문과 블루문이 동시에 뜨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다.

가장 최근은 2018년 1월 31일이었고, 다음은 14년 후인 2037년 1월 31일이다.

시는 신라달빛기행, 비보이 및 시립합창단 등 공연, 신라고취대 공연·행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첨성대 일원에서 선착순 120명에게 백등 꾸미기, 별자리 바디페인팅, 천체관측 체험을 제공한다.

이어 월성해자, 계림, 월정교까지 백등을 들고 가면서 국악 버스킹, 셀프 포토존, 신라복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만 기상청은 31일 저녁 시간대에 경주에는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많이 낄 것이라고 예보했다.



주낙영 시장은 “신라의 밤이 주는 운치를 만끽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 시간을 갖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은정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래를 기대해

50th Anniversary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해.

50th Anniversary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기념으로 2018년 9월 22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전국 해양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2030 미래상 | 01 총 자산 20조원 | 02 선박금융 공급 1위 |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통급

차두리, 클린스만호 코치 합류 유력…마이클 김 코치 사퇴할 듯

대한축구협회, 조만간 축구 대표팀 코칭스태프 개편 내용 발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마이클 김(한국명 김영민) 코치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차두리 대표팀 기술자문(테크니컬 어드바이저)이 클린스만호의 새 코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31일 “8월부터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보직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며 절차가 끝나면 대표팀 코칭스태프 개편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단 1973년생 마이클 김 코치는 대표팀과 결별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김 코치는 2018년 8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 코치에 선임됐던 지도자다.

캐나다 국적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한국 대표팀 코치로 일했고, 이후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대전 하나시티즌, 중국 상하이 등에서 코치를 역임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벤투호’ 코칭스태프 가운데 유일하게 클린스만호에도 몸담은 지도자였다.

최근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재택근무’를 주로 한다는 비판이 불



차두리 어드바이저(왼쪽)와 클린스만 감독(오른쪽). 앞쪽의 맨 왼쪽은 김영민 코치

거진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내가 차두리 어드바이저, 마이클 김 코치와 얼마나 많은 통화를 하고 연락하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마이클 김 코치가 나간 자리는 차두리 어드바이저가 채울 것이 유력하다.

‘차붐’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로도 유명한 차두리 어드바이저는 올해 3월 클린스만호 출범과 함께 대표팀 기술자문을 맡았다.

당시에는 2024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만 차두리 어드바이

저가 대표팀과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코칭스태프 개편에서 코치로 선임될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성이 크다.

차두리 어드바이저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사령탑인 황선홍 감독과 2002년 한일 월드컵에 함께 출전해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클린스만 감독과 독일어로 곧바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가 “이번 코칭스태프 개편에 따라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재 코치진 기준으로는 클린스만 감독 외에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수석코치, 파울로 스트링라 코치, 안드레아스 페프케 골키퍼 코치, 베르너 로이터드 피지컬 코치가 남고 차두리 어드바이저가 코치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마이클 김 코치는 10월까지 업무 인수인계 등을 도울 것으로 알려졌으며 9월 대표팀의 영국 원정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마이클 김 코치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표팀에서 하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네 차례 경기에서 2무 2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데다, 최근 외국에 주로 머무는 근무 형태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상황에서 차두리 어드바이저가 코치로 합류하게 될 경우 클린스만호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축구 대표팀은 9월 4일 인천공항에서 소집돼 영국으로 출국해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차례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 김희성 기자



캐나다 캘거리 전지훈련에 나선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새 시즌 대비 ‘캐나다 전지훈련’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남자 11명·여자 11명)이 캐나다에서 2023-2024시즌에 대비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31일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이 전날 캐나다 캘거리로 출국해 9월 26일까지 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했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이번 캐나다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과 체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캘리는 해발 1천m 이상의 고지대로 심폐지구력이 요구되는 종목 선수들이 즐겨 찾는 훈련지다. 새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의 체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예정이다. / 박정민 기자

빙상연맹의 설명이다.

대표팀은 9월 22~24일 캘거리에서 열리는 ‘풀 클래식’에도 출전해 경기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3-2024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 대회에 나설 선수들은 10월 20~22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 남녀 종목별 선수권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11월 10~12일 일본 오비히로에서 열리는 월드컵 1차 대회를 시작으로 2024년 3월 독일 인체에서 치러지는 2024 ISU 스프린트·올라운드 선수권대회까지 출전할 예정이다. / 박정민 기자

류현진, 4년 만의 쿠어스필드 등판서 4연승 도전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투수들의 무덤이자 타자들의 천국인 쿠어스필드를 4년 만에 다시 찾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은 미국 서부 원정 6

연전으로 9월을 시작한다.

토론토는 9월 2일 오전 9시 40분(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6연전 첫 경기 선발 투수로 류현진을 예

고했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던 2019년 8월 1일 이래 4년 1개월 만에 쿠어스 필드 마운드에 선다.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사는 처음이다.

해발고도 1천600m에 위치한 쿠어스 필드에서는 타구가 공기 저항을 덜 받아쭉쭉 멀리 뻗어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류현진은 쿠어스 필드에서 통산 6경기에 등판해 1승 4패, 평균자책점 7.09로 고전했다. 26%이닝 동안 흠련을 8방 허용했다. 최근 쿠어스 필드 등판에선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의 역투로 승리를 따냈다. 류현진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점수를 주지 않고 승리를 맛봤다.

왼손 팔꿈치 인대를 수술하고 재활을 거쳐 14개월 만에 돌아온 류현진은 이달

14일 시카고 컵스를 제물로 복귀전 승리를 쟁긴 이래 신시내티 레즈,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연파하고 3연승을 질주했다.

빅리그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시속 100km대 초반의 느린 커브와 정교한 제구를 앞세워 광속구 시대에 역행하는 고전적인 패턴으로 토론토의 기울 야구 도전에 큰 힘을 보탰다.

그간 경기를 치른 구장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쿠어스 필드에서도 류현진이 속구, 체인지업, 커브, 컷 패스트볼 4구종의 볼 배합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커브 대신 다른 필살기로 로키스 타자들과 맞설지가 관전 포인트다.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4위인 토론토는 포스트시즌 막차 탑승권이 걸린 3위 텍사스 레인저스를 3경기 차로 훑는 중이라 1승이 절실했던 처지다.

류현진은 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

/ 최준용 기자

여자프로당구 ‘슈퍼 루키’ 한지은, LPBA 1차 예선 통과



16이닝까지 11-8로 균소하게 앞서던 한지은은 17이닝 4점, 18이닝 6점, 19이닝 3점 등 3이닝 만에 13점을 몰아치는 집중력을 보여줬다.

아마추어 랭킹 1위 출신으로 이번 시즌 프로당구 무대에 뛰어든 한지은은 2차 3차 투어에서 연달아 8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한지은은 31일 오후 1시 20분 김보민과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64강전에 나선다.

대회 이틀째인 31일 오전 11시부터 2차 예선이 열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는 64강전으로 이어진다.

64강전에는 최근 10개 투어에서 성적 상위 32위안에 든 선수들이 대회 첫 경기 에 나선다.

한지은은 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

테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즌 4차 투어 에스와이 LPBA 챔피언십 첫날 이은 실과 1차 예선에서 하이런 6점을 앞세워 20이닝 만에 25-10으로 승리했다.

/ 오문섭 기자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5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거미집'·'천박사' 9월 27일 개봉 확정...‘보스톤’과 3파전



추석 연휴에 맞붙는 영화 '거미집', '천박사', '1947 보스톤'

추석 연휴를 겨냥한 한국 영화 3편이 한 달 동
시 개봉해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다.

영화 '거미집' 배급사 바른손이앤에이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하 '천박사') 배급사 CJ ENM은
이들 영화의 개봉일을 각각 다음 달 27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영화 '1947 보스톤'도 같은 날로 개봉일을 정한
바 있다.

올 추석 연휴는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2
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길게는 개천절인 3일까

지 6일간 휴일이 이어질 수 있다.

명절은 극장가 성수기로 꽉히는 만큼 이번 추석 개봉
작 세 편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작품은 연휴에 강한 코미디나 드라마 장르로, 스
타 배우를 내세웠다는 공통점도 있다.

김지운 감독이 연출한 '거미집'은 송강호를 필두로 임
수정, 오정세, 정수정, 전여빈 등이 출연했다. 1970년대
영화계를 배경으로 김감독(송강호 분)이 활영을 마친 영
화를 다시 찍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이기도 하다.

김성식 감독의 '천박사'는 강동원이 극을 이끈다. 강력
한 귀신에게 빙의된 소녀 사건을 의뢰받은 가짜 퇴마사
천박사 역을 맡았다.

강제규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1947 보스톤'은
하정우와 임시완이 주연이다. 이 영화는 1947년 미국 보
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된 서윤복(임시완)과 그의
코치이자 전설적 마라토너 손기정(하정우)의 이야기다.

/ 임은정 기자



하이브IM “모바일 음악 게임 ‘리듬하이브’에 뉴진스 포함”

하이브의 게임 계열사 하이브IM은 모
바일 음악 게임 ‘리듬하이브’에 신규 아티
스트 ‘뉴진스’를 포함해 업데이트했다고
31일 밝혔다.

게임에는 최근 미니 2집 ‘셋 업’(Get
UP)으로 복귀한 뉴진스의 히트곡 ‘어텐션
(Attention)’, ‘디토(Ditto)’, ‘하이프 보이
(Hype Boy)’, ‘슈퍼 샤이(Super Shy)’ 등
의 플레이리스트가 추가됐다. / 신지해 기자

또 뉴진스 멤버들을 활용한 스티커가
제공돼 게임 속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으
며, 팬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음성 메시
지도 만나볼 수 있다.

하이브IM은 다음 달 13일까지 ‘뉴진스’
음원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뒤 인증을 완
료하거나 높은 랭킹을 달성한 이용자들에
게 추첨을 통해 뉴진스 공식 응원봉을 제
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신지해 기자

나나도 이한별도 아닌 ‘마스크걸’ 목소리 어떻게 만들었을까



수퍼톤은 마스크를 쓰면
다른 인격으로 돌변하는 김
모미의 캐릭터를 연출하기
위해 BJ 마스크걸만의 새로
운 목소리를 생성해냈다.

마스크걸의 목소리는 김
모미 역을 맡은 나나와 이한
별의 목소리를 연기 톤, 음색
등 여려 요소로 분석한 뒤
재조합해 만들었다.

이교구 수퍼톤 대표는 “BJ
마스크걸이 기존 배역과 다
른 인격을 보여주는 만큼, 제
3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제작진의 연출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퍼톤의 기술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스크걸’ 김용훈 감독은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인 캐릭터의 연결성을 위해
수퍼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자회사인
오디오 기업 수퍼톤은 K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오디오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배우 고현정, 나나, 이한별이 김모미로
3인 1역을 맡아 화제가 됐다.

/ 최정훈 기자



이준호, 日 데뷔 10주년 투어 “함께한 여름 기억할 것”

가수 이준호가 지난 26~27일 일본
나고야 니혼가이시홀에서 솔로 투어
콘서트 ‘마타 아예루 히’(다시 만나는
날)의 마지막 공연을 열었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30일 밝혔다.

이준호는 지난 달 22일 일본 요코하
마를 시작으로 고베, 나고야 등 3개 도
시에서 5년 만의 일본 단독 투어 콘서
트를 열었다.

마지막 날인 27일 공연에서 첫 곡
‘마타 아예루 히’로 문을 연 이준호
는 ‘노바디 엘스’(Nobody Else), ‘하이
페’(HYPER), ‘달링’, ‘캔 아이’(Can I) 등
댄스와 발라드를 오가며 다채로운 무
대를 선보였다.

올해로 일본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
은 이준호는 “10년간 제 곁에 있어 주
셔서 감사하다”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함께 보낸 이번 여름을
기억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고 인사를 건네며 투어의 막을 내렸다.

이날 공연은 국내 팬을 위해 전국 9
개 CGV 극장에서 생중계됐다.

/ 박소희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 10% 지원 (3년 한시) | **수수료 0원 (5년 한시)**

푸른씨앗 심고! 희망 미래 열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

푸른씨앗 홍보모델 류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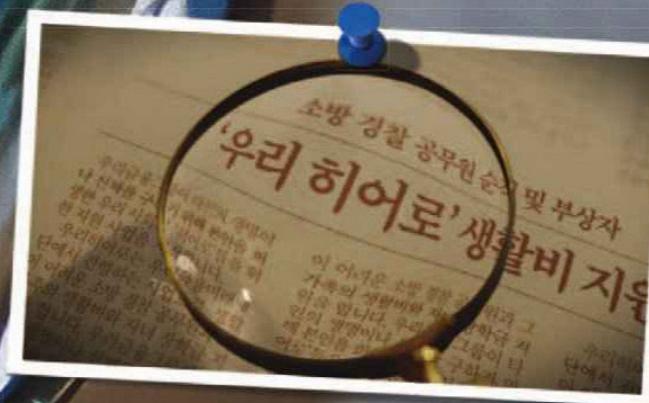


우리금융그룹

우리

동사

기대하다

올해 우리는 대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어봅니다.
기대하세요. 우리 함께 바꿀 우리.#자립준비청년 지원
응원한다#생명의 숲 조성
지킨다#우리동네 선한가게
띄운다#우리 히어로 지원
기억한다#근대5종 선수 전용태
#e스포츠 국가대표팀
밀어준다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